



붓다를 소재로 10여년 째 작품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조재익 작가. 그는 불교 수행을 통해 작품의 방향성을 새롭게 찾았다고 말한다.

## 수행 여정서 피어난 '붓다의 미소'

### 문화 15회 개인전 연 조재익 작가

30대 중반 작가는 길을 잃었다. 30여년 그려온 그림이었지만 어떻게 그려나가야 할지 도무지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 방향 끝에 불교 수행을 만났다. 위로가 되었다. 그림의 방향도 바뀌기 시작해 불교의 형상들을 화폭에 담기 시작했다. 그렇게 수행과 그림을 병행하던 작가는 2007년 수행만하기로 결심하고 미얀마행을 선택했다. 가족들에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라 통보까지 했다. 비장한 마음이었다.

작가는 슈웨우민 선원에서 비구계를 받고 스님으로 살며 수행에 전념했다. 1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우기가 시작되었다. 폭풍이 오니 사원 주변이 부서졌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그저 내리는 비를 바라보거나 책을 읽는 게 전부였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새벽 비가 멎었다. 문을 열고 슬리퍼를 신고 밖으로 나갔다. 모든 것들이 선명했다. 슬리퍼를 끄는 소리, 환하게 비쳐오는 햇살이 온몸의 감각으로 다가왔다. 그것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있는 그대로의 존재가 온 몸과 마음으로 느껴졌다. 저기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여기'.

붓다를 소재로 10여년 째 작품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조재익 작가(52)가 10월 29일

~11월 5일 '붓다-꽃이피다2014'로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가 열리고 있는 가회동 60 갤러리에서 작가를 만났다. 삭발을 한 머리에 반짝이는 눈빛을 가진 작가는 스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갈 만큼 범상치 않은 인상이었다.

그는 미얀마 출가 당시의 이야기를 하며 매우 조심스러워했다. 이 순간을 '일발'이라고만 해달라고 당부한다. '한번 힐끔 본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일발'. 하지만 겸손의 말인듯했다. 그간 수행의 여정이 그

#### 작품의 방향성 고민하던 시절

#### 미얀마 출가 등 불교수행 매진

#### 붓다 이미지와 불교성지 작품에

대로 담긴 작품 속 붓다의 얼굴에서는 평화가 느껴졌다. 또 세상을 잔잔하게 수용은 꽃들은 소박한듯 반짝이며 존재를 발하고 있었다.

"당시의 경험을 너무 특별하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말이라는 것은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당시의 경험으로 제가 누구인지 알게 됐고 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와 저기가 다르지 않음을 알았죠. 이후 원래의 자리로 돌아왔고 다시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은 제가 늘 해왔던 일이고 유일한

게 잘할 수 있는 일이나가요."

이후 그의 그림에는 욕심이 빠졌다. "젊은 시절에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많았어요. 피 끓는 청춘에 이것저것 이루고 싶은 것들도 많았죠. 이제는 알아요. 삶이 깊어지면 그림도 깊어지고, 역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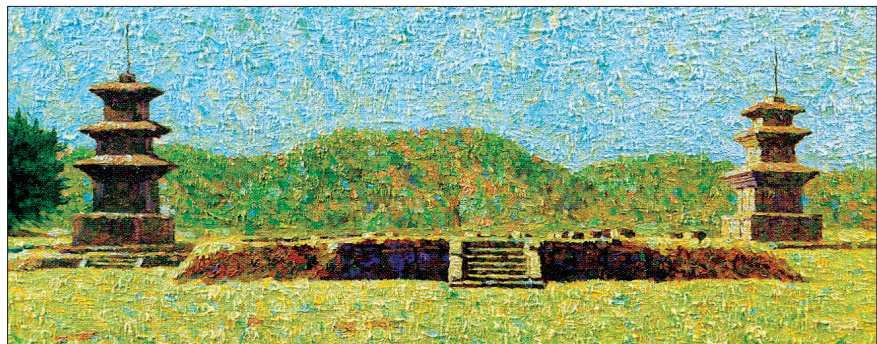
이번 전시에서 그는 경주 남산의 붓다, 간다라 붓다, 크메르 붓다 등 각처의 다양한 붓다의 이미지를 담아냈다. 자신이 여행지에서 보았거나 아니면 사진에서 보았던 불상들 중 선정에 든 듯한 부처의 모습을 선별한 것이다. 여기에 국내의 폐사지는 물론 티베트 인도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등 불교의 흔적을 찾아 다녔던 여행지의 느낌을 배경으로 담아냈다.

"불교수행을 하다보니 주변분들의 권유로 자연스럽게 불교 유적지를 여행할 기회가 생겼죠. 사실 작품 때문에 따로 여행을 가거나 그런 성격은 아니에요. 그렇게 여행을 하면서 본 풍경들을 그림에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불상들은 제가 직접 본 작품도 있지만 불교 유적지 곳곳의 이미지 사진을 보면서 상상적인 느낌, 고풍함, 평화로운 이미지들을 찾아냈어요."

지금 여기의 소중함을 알고 끊임없이 붓다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그려내는 조재익 작가. 삶 속에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 그 알아차림을 통해 삶도 작품도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파도가 일지만 다시 본래의 그 자리로 돌아오니 어떤 것도 문제 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 저도 경계에 부딪히면 화도 내고 짜증도 내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죠. 저는 다만 알아차릴 뿐입니다. 다만 그럴 뿐이죠."

그렇게 작가는 스스로를 알아차리는 과정을 통해 삶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었다. 또한, 저기도 거기도 아닌 오직 '여기'에서 묵묵히 작업에 임하며 수행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었다.

정혜숙 기자 bhjhs@hyunbul.com



옛길 - 두 개의 탑. 작가가 여행한 감은사지도 화폭에 담았다.

## 요즘 들어 인간 속세 좁게만 느껴지네

### 김창협과 흡연 스님의 인연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학문적 성취가 높았던 김창협(金昌協 1651~1708)은 강화 보문사와 아주 기이한 인연을 맺었다. 그의 문집 <농암집(農巖集)> 제6권에는 '보문암'이라는 제목의 시 3수가 전한다. 그 중 한 수의 제목 자리에는 긴 이야기가 서술되어 있는데 흡연(翁然) 스님과 보문사에 얽힌 인연이야기다.

"지난 기미년(1679, 숙종5)에 나는 영평(永平) 백운산(白雲山) 기슭에 있었다. 하루는 백씨(伯氏)와 함께 소를 타고 보문암을 찾았는데, 마침 흡연(翁然)이라는 이름의 승이 승도 10여 명과 함께 정진회(精進會)를 열고 있었다. 나는 그때 밤새도록 들리던 선승(禪誦) 소리가 마음에 들어 오래도록 잊지 못하였다. 지금 백씨를 따라 강도(江都)에 왔다가 우연히 해상(海上)의 보문암이 경치가 매우 아름답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다. 그래서 백씨와 함께 배를 타고 찾아와 보니 흡연 대사도 마침 이곳에 있었다. 20년 만에 예기치 못한 곳에서 그를 다시 만난 데다 암자의 이름도 보문암이니, 참으로 기이한 일이다. 대사는 보관하였던 <전등록(傳燈錄)>을 꺼내어 표지에 쓴 글자를 가리키며 "공의 필적입니다" 하였다. 당시에 우리는 이것을 훗날 다시 만나게 될 증표로 삼았는데, 이제 과연 증험이 된 것이다. 나는 처음에 그것을 보고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머리동떨하다가, 한참 생각한 끝에 번역 품에서 꺼내던 것 같았다. 스스로 생각건대, 나는 본디 세상에 나갈 뜻이 없고 대사는 매일 곳이 없어 인연 닿는 대로 떠도는 형편이니, 훗날 또 어디에서 해후하게 될지 모르겠다. 오늘처럼 다시 해후할 수 있을까? 감탄하던 끝에서 한 수를 지어 간직하고 가라고 승에게 주는 바이니, 훗날 또 증험이 될지 보아야겠다."

스님과 선비의 만남이 이렇게 이어지다니, 읽는 이에게 신선한 맛을 준다. 이 글에 나오는 영평은 지금의 포천인데, 김창협이 정풍(지금의 제천) 부사로 있을 때 기사환국으로 아버지가 진도에서 사사되었다. 그 충격에 벼슬을 내려놓고 포천에서 은거 생활을 했다. 포천은 안동 김씨 가문의 세거지였다. 그 때 형님과 백운산 보문암에서 정진회를 주도하는 흡연 스님을 만났고 그 수행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아 교유를 했던 것이다.

그런 인연이 20년이 지나서 강화도 보문사에서 우연히 다시 이어졌으니, 시 한 수를 쓰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의 제목 자리에 그 놀라운 인연 이야기를 다 적어 두지 않을 수도 없었을 것이

### 임연태 시인 山寺에 깃든 선비의 詩心

#### 44 강화 보문사 ㉞



신라 선덕왕 4년에 지어진 것으로 전해지는 보문사 석굴법당

다. 그 놀라운 인연을 체험하고 쓴 김창협 시를 보자.

매역기우과흡공(每憶騎牛過翁公) 아문선승백운중(夜聞禪誦白雲中) 홀경절해상봉재(忽驚絕海相逢再) 경괴정려구호동(更怪精廬舊號同) 패십제침여작일(貝葉題籤如昨日) 양지재수기춘풍(楊枝在手幾春風) 잔생미복중재차(殘生未卜重來此) 병석타시당복동(甁錫他時 覆東)

소를 타고 흡공 찾아 보문암에 갔던 기억 백운산에 독경 소리 한밤중에 울렸지. 놀라워라 먼바다서 다시 그를 만난 지금 괴이할사 정사 또한 옛암자와 이름 같네. 불경의 표지 글씨 예전 모습 그대로네 손에 든 버들가지 춘풍 몇 번 거렸는가. 죽기 전에 내다시 여기 올 수 있을까. 흡공이 이 다음에 동쪽 행여 찾아올까?

시를 쓰게 된 배경의 인연 이야기를 그대로 시로 그려냈다. 앞의 이야기를 읽고 시를 읽으면 그 감동이 언어의 절제를 통해 더욱 애뜻하게 다가온다. 경련의 '손에 든 버들가지 춘풍 몇 번 거렸는가'라는 표현은 두보(杜甫)의 '별잔상인(別殘上人)'이라는 시에 나오는 이야기를 빌려 온 것이다. 두보의 시에 "버들가지 새벽에 손에 있더니, 가을비에 콩알이 하마익었네(楊柳晨在手 豆子雨已熟)"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찬이라는 상인(스님)과 헤어진 뒤 여러 해가 지났음을 표현한 것이다. 김창협도 흡연 스님과 여러 해 동안 만나지 못했음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다음에 동쪽 행여 찾아올까"라는 구절은 보문사가 서쪽 바다 섬에 있으므로 육지에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 초탈의 세계를 그리는 마음

김창협은 흡연 스님과 기이한 인연 이야기를 담은 시 외에 두 수의 시를 <농암집> 제6권에 남기고 있다. 그 가운데 두 번째 시를 보자.

고도명정절사린(孤島重溟絕四) 경련암굴정무진(更憐巖窟淨無塵) 공명미허서편복(空明未許棲) 개척혼의유귀신(開鑿疑凝有鬼神) 낭리간산시오배(浪裏看山是鼈背) 야심청법지교인(夜深聽梵只蛟人) 이내전각환구어(爾來轉轉區隘) 원차승상노차신(願借繩牀老此身)

사방 이웃 하나 없는 먼바다 외딴섬에 티끌 없이 깨끗한 바위굴이 더욱 좋네. 텅 비고 환하여서 박쥐조차 살 수 없고 바위를 파낸 솜씨 귀신의 조화로세. 바다에서 산을 보면 자라 등 모습이고 깊은 밤 범종소리 울고기만 듣는대네. 요즘 들어 인간 속세 좁게만 느껴지니 노년 보낼 허름한 침상 하나 빌렸으면.

부친이 정치적인 이유로 사사를 당한 후, 김창협은 벼슬을 내려놓았는데 후에 아버지가 신원 되어 여러 벼슬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여전히 관직은 사양하고 학문에만 전념하는 곧은 자세를 유지했다.

김창협이 보문사를 찾았을 때는 지금의 마애관음좌상이 없었다. 그러나 석굴법당은 오랜 역사를 지닌 채 전해와 '바위를 파낸 솜씨 귀신의 조화로세'라고 감탄한 것이다. 신기한 인연을 경험한 보문사에서 기묘한 석굴법당에 대한 감동까지 그의 마음은 몹시 넓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초탈의 세계를 동경하며, 속 좁은 세상일 떨치고 보문사에 침상이나 하나 빌려 살고 싶은 심경을 속소림이 드러내고 있다.



# 성종사, 대만 최대 불광산사 범종 수출!

### 세계로 수출되는 성종사 범종! 우리의 자랑스런 불교문화유산입니다



불광산사 범종 (중량 6700관)

최근 세계적인 범종 제작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성종사가 대만 최대 사찰인 불광산사 범종을 수주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대만 최대 규모인 6,700관(25.5ton)으로 제작된 본 범종은 성종사 특허공법인 밀랍주조공법으로 제작되어 표면과 문양이 매우 매끄럽고 섬세할 뿐만 아니라, 음향측정 결과에서도 소리가 매우 웅장하고 맥놀이가 뚜렷하다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성종사의 범종은 대만, 중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 불교권 국가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 전사관 :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43 TEL 02)733-6141 / FAX 02)733-4840
- 사이트 : www.sungjongs.co.kr / E-MAIL : sungjongs@hotmail.com
- 공 장 : 충북 진천군 덕산면 합목리 406-28 TEL 043)536-2581 / FAX 043)536-2582
- 대 표 : 범산 원광식 (중요무형문화재 제 112호 · 대한민국 명장)



## 이 사람아!

나는 종을 위해서  
한쪽 눈을 바쳤어  
혼을 담아야 천 년의 소리가 나오는 거지  
잔재주 부리면 끝이야! 끝!

고객을 위한 원칙과 고집  
한국의 명장,  
당신의 마음을 배우겠습니다!

